

전주형 참여민주주의 기틀 다진다

시, 다올마당·시민원탁회의·타운홀 미팅 통해 시정참여 기회 확대

전주시가 아동친화정책 수립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 전주만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시는 주요 정책 방향을 시민 참여로 결정하는 다올마당 운영과 다수의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전주시민원탁회의에 이어 정책 제안 및 보안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확대, 전주만의 참여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나간다는 구상이다.

△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다올마당'

전주시가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첫 번째 수단은 다올마당 운영이다. 민선 6기 전주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다올마당은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을 의미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업으로, 시정 주요현안이나 중심시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그 시작 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게 제도화한 것이다.

다올마당 운영 사업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모든 전주시 현안사업으로, 현재 '전통문화관광 다올마당'과 '생태동물원 다올마당',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다올마당' 등 각 부서별 주요 20여개 사업에 걸쳐 다올마당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다올마당에는 관련 단체실무자와 언론, 전문가,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며, 시민대표 등 일반 시민들이 전체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주제 선정부터 모든 과정을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민원탁회의'

'전주시민 원탁회의'는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의 하나로, 시민들의 지혜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시도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내가 1년간 전

주시장이 된다면'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민원탁회의는 민선6기 교육, 복지, 문화, 도시재생, 교통, 생태 등 6개 분야별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으며, 제2회 전주시민원탁회의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Again 1963! 다시 시민의 힘으로 종합경기장을 디자인 하자!'를 슬로건으로 열린 종합경기장의 미래구상에 관한 시민원탁회의에는 전주시민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열린 '아시아 TOP3 관광도시 전주의 품격을 높일 100가지 아이디어'를 주제로 한 시민원탁회의에는 전주시민 200여명이 관광도시 전주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인 후 관광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 및 의견 수렴방식의 하나로 제도화된 전주시민원탁회의는 매년 2회 정도 개최되며, 원탁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전주시 홈페이지 '다올

마당' 코너를 통해 공개된다.

△ 타운홀 미팅 개최로 전주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시는 다올마당 운영과 시민원탁회의 개최에 이어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를 통해 전주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주형 참여민주주의의 기반을 닦을 계획이다. 타운홀미팅은 지역 주민들이 정책결정권자나 선거 입후보자와 만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시민들 개개인의 소중한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 모든 시민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시민들의 생각하는 전주의 미래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전주시의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올마당과 시민원탁회의, 타운홀 미팅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2758억원 시세 납부

전년대비 278억원 증가

전주시 시세 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면서 주요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전주시는 지난 10월말까지 총 2758억원의 시세가 납부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억원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부과 대비 징수율도 1년 전보다 0.8%p 늘어난 94.3%를 기록했다. 체납액은 1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지방소득세의 경우 1년 전보다 81억원 늘어난 725억원이 징수됐으며,주민세는 25억원 늘어난 105억원이 징수됐다. 또, △재산세(705억원 징수, 전년대비 53억원 증), △자동차세(799억원 징수, 전년대비 4억원 증), △담배소비세(353억원 징수, 전년대비 70억원 증) 상승이 주요 증가 세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증가의 요인은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분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민세는 세율인상 및 면세기준 변경,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 자동차세는 신규 및 전입차량 증가, 재산세는 공동주택 신축과 만성지구, 예코타운 등 개발지구 지가상승이 주요

인자로 분석됐다.

이에 앞서 시는 보다 효율적인 지방세 납부홍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내부에 납세홍보를 시작하고, 지난해부터는 지상파(TV) 자막방송을 시행하는 등 납세자들이 잊지 않고 적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해왔다.

또한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0월에 성실납세자중 200명을 선정하여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고 세무행정적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전재삼 전주시 재무과장은 "급변하는 지방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무엇보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탈부·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징수율이 도내 타시·군 평균 징수율보다 3% 높고, 체납액도 아주 낮은 편에 속해 전북도가 실시한 세정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영재 기자

출소 두달만에 다시 무전취식 60대 실형

누번기간 중 똑같이 무전취식과 영업방해를 자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부 제6단독 장운원 판사는 지난 28일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1, 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사기죄와 영업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올 6월20일

출소한 강씨는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3일에 똑같은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전주시 완산구 고시동의 한 술집에서 시가 2만 5천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2병을 먹은 뒤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차고 의자를 던지는 등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근 기자



"이럴수가!"

28일 완주군 상관면 임의의 한 임아가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파헤쳐져 흙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지역 주민들은 군이 신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신지전용 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 = 전북환경연합 제공〉

‘아동이 즐겁고 행복한 전주 만들기’ 본격 시동

전주시, '정책 제안 타운홀미팅' 개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첫 걸음

전주시가 아동을 비롯한 전주주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아동이 가장 행복한 전주 만들기를 본격화한다.

시는 28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자녀로 둔 학부모,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기관 종사자 및 교사, 아동관련 교수 등 100여명의 전주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제안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타운홀 미팅은 정책결정권자 또는 선거입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주요 정책 또는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회의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로 평가된다.

시와 아동국제기구NGO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호남지부장 유혜영)과 합

께 마련한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는 평소 아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아동생각나눔단'을 정식 발대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아동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개선되어야 할 의견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했다. 또, 아동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시 실무부서에 전달해 관련 사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아동친화TF팀을 신설했으며, 지난 6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아동권리인식도 및 아동친화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학부모,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또, 최근에는 아동의 참여기구 운영,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등 실질적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참석자들은 또, '내가 바라는 아동친화정책'을 주제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교육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이야기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시 관련 부서에서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지난 8월 실시한 아동친화도조사 결과와 아동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 장·단기적인 아동친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

에어컨 배관 훔친 50대 검거

전주덕진경찰서는 28일 웨딩홀 내의 시스템 에어컨 배관 2,124㎝를 뜯어간 특수절도범 박모씨(52, 남)를 검거했다.

박씨는 지난 8월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 웨딩홀에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설치된 있던 배관 4,600만원 상당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 겁없는 10대 붙잡아

장수경찰서는 28일 1톤 트럭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A씨(17, 남)를 형사 입건 했다.

고등학교에 불과한 피의자는 지난 9월 7일 장수군 소재의 한 농장에서 약 20km를 무면허 운전하고, 차량 옆에 있던 콤바인에 들어가 담배 1보트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